사진기자의 딴 짓

피자 저리가라!

우리 나라 최대 명절인 설이 지났습니다.

긴 연휴라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명절을 혼자 보내는 것에 화가 난 아버지가 방화범이 돼 경찰서를 찾았고, 자식들의 돈 싸움에 목숨을 끊은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에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국보 1호 숭례문이 화마에 주저 앉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도 변함없이 수많은 귀성객이 고향집을 찾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 든든한 정을 나눴으며, 모처럼만에 재래 시장도 사람 내음 물씬 풍기며 활기에 넘쳤습니다.

설날 오후 국립 광주 박물관 앞에서 설빔을 곱게 차려입은 꼬마 녀석을 만났습니다. 주머니 가득 새뱃돈 챙기느라, 조상님들을 뵙느라 바쁜 오전을 보낸 아이는 오후에는 각종 전통 놀이와 떡메치기 행사로 흥에 겨운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떡메가 '찰싹 찰싹' 허공을 가를 때마다 쭉쭉 늘어나는 떡의 모습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치켜보던 아이가 냉큼 떡을 집어들었습니다. 방금 막 탄생한 따끈따끈, 쫄깃쫄깃한 떡이 아이의 입안으로 그대로 빨려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이는 두 눈까지 꼭 감고 환상적인 떡맛을 제대로 음미할 태세입니다.

피자, 햄버거, 튀김 등의 인스턴트 음식에 길들어진 요즘 아이들에게도 설날 막 찧어낸 떡 맛은 꿀맛이었겠지요?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I love MY student

"선생님이 처음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김윤필

요즘 아이들은 자기 주장이 확실한 반면에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 대화를 나눌 때에도 자기의 주장만 말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자신이 필요한 말만 듣곤 한다.

몇해 전의 일이다. 1학년 담임을 했던 나는 날마다 변해가는 아이들의 모습에 행복해 하며 아이들과 하루하루를 엮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반의 A가 학교에 오지 않았다. 집에 전화 해보니 아침밥 잘 먹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라며 나갔다는 것이다. 다른 학년에도 2명의 학생이 결석을 했단다. 수업중이라 학생들을 찾으러 교감선생님께서 직접 마을로 나가셨다.

아이들은 냇가에서 놀고 있었다. 연락을 받고 나온 부모님들은 싸리 빗자루를 가지고 나오셔서, 아이들을 만나자마자 빗자루로 마구 때리며 "너 이놈 학교에 가기 싫으면 죽어버려라" 하더란다.

학교에 돌아온 아이들에게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A는 형과 누나가 가자고 해서 따라 갔단다. 그러면서 엄마한테 많이 맞았으니 매는 맞기 싫단다. 당시 2학년 여학생이던 B는 눈물만 글썽이고 있었다. 옷에는 흙과 먼지가 묻어 더러워져 있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점심시간에 다시 불러서 물었더니 친구들이 엄마 없다고, 더럽다고 놀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학교에 오기 싫었단다. 그날 난 B의 엄마가 되기로 하고, 친구들처럼 옷도 깨끗이 빨아 입고 머리도 자주 감고 다니기로 약속 했다.

다음날 엄마 된 기념으로 분홍색 목걸이와 셔츠를 준비하여 퇴근길에 B의 할머니를 만났다. 할머니는 B의 아버지가 돈 벌러나가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잦은 음주와 구타로 집을 나가는 바람에 두 남매를 키우고 계신다고 했다. 그 후에도 B와 난 자주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 아이들 물건을 구입할 때면 B의 것도 하나 더 구입하여 주곤 했다. B는 날이 갈수록 밝아졌고, 몸도 깨끗하게 하고 다니는 듯했다.

그러나 이모가 삼촌이, 아빠가 사주었다고 하면서 거의 매일 군것질을 한다고 했다. 교실의 아이들은 물건과 돈을 잃어버렸다. B의 담임은 B의 짓이라고 했다. B에게 조심스레 물어 보았으나 돈을 주는 사람이 많단다. 며칠 말을 걸지 않았더니 내 주위를 빙빙 돌면서 눈치만 봤다. 2학년이 거의 끝날 무렵 B가 쪽지를 보내 왔다. '앞으로는 절대로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고 공부도 열심히 하겠노라고'

그리고 해가 바뀌어 B가 있는 3학년을 담임하게 되었다. B는 여전히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항상 풀이 죽어 있었다. 여자애들의 수다에도 함께 하지 못했고, 수업시간에도 집중을 하지 못하고 헛생각을 하거나 창밖을 바라보고 있곤 했다. 따로 불러 물어봤더니 친구들이 놀아 주지 않는단다. 이유는 그냥이라고 답했다. 그래서 내가 본 이유를 말해 주었다.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머리를 감기고 목에 있는 때도 씻어 주었다.

매일 칭찬을 해 주고, 발표도 시켜보았지 망설이다가 주저 앉곤 했다. 그러던 아이가 날이 갈수록 조금씩 변해 갔다. 스스로 빨래도 해 입고 머리도 자주 감고 다녔다.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그 어렵다던 구구단도 외우고 공부에 흥미를 느끼면서 각종 학교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일기를 통해서 매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가끔 등굣길에 사과 한 개, 자두 한 개씩을 가져와 내 책상위에 올려 놓곤 가기도 했고, 내 책상을 정리 해 주기도 했다. 책도 자주 읽는 등 날로 변해가면서 성적도 상위 그룹으로 올라왔다. 머리가 좋았던 B는 노력하지 않고 공부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이었다.

3학년이 끝날 무렵 B는 감을 한보따리 들고 와서 "선생님이 저를 처음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라고 했다. 그리고 "지금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꼭 선생님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있다. 〈장성중앙초등학교 교사〉

리빙 센스

오꼬노미야끼 만들기

명절이 끝나고 남은 음식들을 활용해 일본식 부침개 '오꼬노미야끼'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반죽

부침가루, 다시마로 낸 국물(or 물), 마가루(or 녹말가루):국자로 떴을 때 흐를 정도로 반죽 재료들을 섞어주세요. 마나 녹말가루는 한 스푼 정도 넣어주면 됩니다.

▲토핑

대파, 양배추, 새우, 베이컨, 오징어:대파는 동그랗게, 양배추는 잘게 썰어주세요. 취향대로 다른 야채도 넣어도 됩니다. 새우, 베이컨, 오징어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두세요.

반죽을 팬에 깔아 살짝 익힌 뒤 양배추·대파를 올리고 나머지 재료들도 첨가해 익혀주세요. 반죽이 익으면 뒤집어 익혀주세요.

▲소스

돈까스 소스, 마요네즈, 가쓰오부시(가다랭이포):소스를 취향에 맞게 뿌린 뒤 가쓰오부시를 올리면 완성됩니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12일(음 1월 6일 壬午)

子 36년생 어부지리가 있지만 결과는 좋지는 않다. 48년생 제사에 신중하고 욕심을 버려라. 60년생 협조자가 나오나 조심성 있게 판단하라. 72년생 불순한 일이 괴롭힐 수도 있다. 84년생 부부간의 이해가 부족하니 대화가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04, 45

丑 37년생 작은 것은 내주고 귀중한 것을 취하라. 49년생 좋은 일과 연결될 기회가 생긴다. 61년생 인생은 지금부터, 멋을 아는 시기이니 행동하라. 73년생 길보다 흉이 더 많으니 매사에 신중 하라. 85년생 기상천외한 횡재수가 있다. 행운의 숫자 : 06, 35

寅 38년생 자기자랑보다 동료를 칭찬하면 공은 내게로 온다. 50년생 상황에 따라서 시비 도난 분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62년생 뜻하지 않은 돌발 사태에 지혜롭게 대처하라. 74년생 이성의 만남도 좋은 계획을 세워라. 행운의 숫자 : 10, 28

卯 39년생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있으나 쉽지는 않다. 51년생 나에게 불편한 일은 모두가 내 탓으로 생각하라. 63년생 제일 편한 사람이 제일 소중한 사람이다. 75년생 공술에 병이 따르니 피하는 게 상책이다. 행운의 숫자 : 22, 26

辰 40년생 본인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라. 52년생 도화기가 재발하면 망신수가 있으니 조심하라. 64년생 흥분은 금물이니 생각하고 행하라. 76년생 직장에서 새로운 일로 인정받고 가정의 평안이 있다. 행운의 숫자 : 02, 32

巳 41년생 신체적 불편이 나올 수 있고 주변이 어지럽다. 53년생 새로운 일이 생기니 전후좌우를 살펴 가라. 65년생 예상치 못했던 실물수가 있으니 주의하라. 77년생 늦을수록 불리하니 오늘 할 일을 미루지 마라. 행운의 숫자 : 23, 44

午 42년생 애사가 생길수도 있고 가족과 떨어져 살 수도 있다. 54년생 부부사이의 사랑은 두 배로 되리라. 66년생 배우자 덕이 없다고 생각이 들면 자신의 탓. 78년생 새로운 인생을 설계 할 때다. 행운의 숫자 : 13, 43

未 43년생 많은 지출이 발생하나 투자로 생각하라. 55년생 부모 형제의 도움이 있고 새 생활이 시작 된다. 67년생 작은 일도 필승의 각오로 추진하라. 79년생 욕심을 버리는 者에게 승리의 여신은 미소를 보낸다. 행운의 숫자 : 19, 42

申 44년생 재물과 건강에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 56년생 식구들의 건강을 살펴볼 때다. 68년생 직업과 돈, 남편, 자녀들까지도 조심해야. 80년생 무리한 변화는 잘못이 따르니 신중하게 처신하라. 행운의 숫자 : 01, 31

酉 45년생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라. 57년생 주변의 변화로 재물이 생길 수도 있다. 69년생 건강을 위해 노력하라 목 관절이 불편수다. 81년생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 되나 자만은 하지마라. 행운의 숫자 : 18, 43

戌 46년생 슬픔과 기쁨이 같이 나타지만 끝내는 기쁨이다. 58년생 불연이면 송사에 휘말린다. 70년생 아랫사람과 금전거래는 절대로 하지마라. 82년생 애인과 다툼은 있으나 원인은 사소한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6,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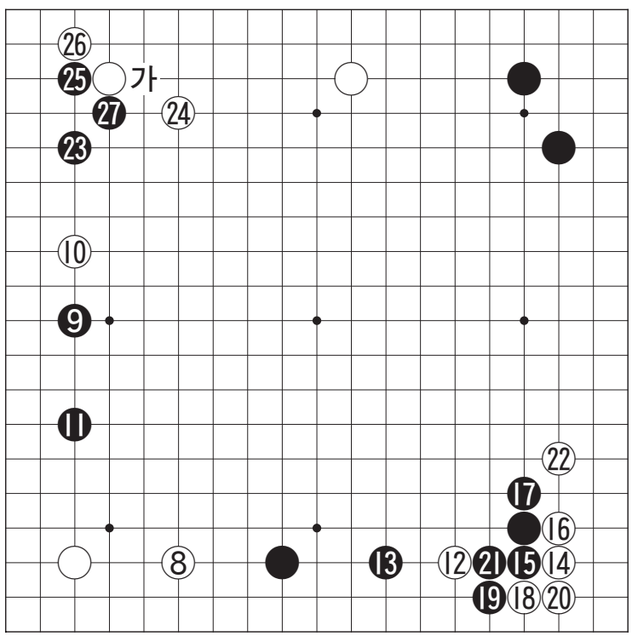
亥 47년생 소신껏 행동하라. 59년생 일실일득, 작은 것을 얻고 큰 것을 버리는구나. 71년생 귀인을 만나서 도움을 받지만 마무리는 자신이 하라. 83년생 부모에게 효도도 중요하나 자식교육이 더 重要 하리라. 행운의 숫자 : 24,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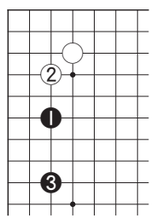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광주 기우회 대항전

대표적인 장고파들 2보(8~27)

白 김희관 5단 (무석회) 黑 임상빈 6단 (광유회)





〈참고도〉

두 대국자는 실리파들의 대결 답게 돌들이 3선으로 깔리고 있다. 흑 9로 갈라친 것은 장기전을 예고한 수로 보통은 '참고도'의 흑 1로 느슨하게 걸치고 3으로 벌리는 것이 제일감이다.

백 12로 걸쳤을 때 흑 13의 협공은 당연하며 22까지는 바둑에 입문하면 가장 먼저 배우는 대표적인 화점정석이다. 지금에는 이 정석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두어지고 있지만 이것을 유행시킨 기사는 이창호 9단으로, 그 이전에는 잘 쓰지않던 정석이었다. 그런데 이창호가 이 정석을 애용하며 승승장구하자 너도나도 쓰기 시작하면서 대유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임상빈 6단 대표적인 장고파로 초시계가 없으면 상대가 매우 괴로워 한다. 그런가 하면 김희관 5단 이에 뒤지지 않는 장고파다. 기풍이나 실력, 기질 등 여러가지 면에서 비슷한 유형으로 라이벌로는 제대로 만난 셈이다.

흑 27을 보더니 '가'로 늘지않고 다른 변화를 생각하는지 김희관 5단 장고를 하고 있는 장면이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전자랜드배 주작왕전 개막

여성 프로기사들의 리그인 제5회전자랜드배 주작왕전이 11일 개막했다. 최근 9단으로 승단한 박지은을 비롯해 32명의 프로기사가 우승컵을 놓고 격돌한다.

특히 예선 1회전부터 강력한 우승후보인 조혜연 7단과 루이나이웨이 9단이 맞붙고, 이 경기의 승자와 박지은이 2회전에서 대결을 펼칠 가능성이 커 초반부터 불꽃 튀기는 열전이 예상된다.

첫날 개막전 형식으로 열린 조미경·김윤영 초단의 경기에서는 김윤영이 이겼다. 이번 대회 제한시간은 각 10분 40초, 초읽기 1회이며 상금은 1천만원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굿모닝 잉글리쉬 <1094>

Thanks for bringing dinner over

저녁 식사를 갖다 주시니 감사합니다

A : Thanks for bringing dinner over.
B : No problem.
A : I'll get it next time.
B : All right.

A : 저녁 식사를 갖다 주시니 감사합니다.
B : 뭘요.
A : 다음에 제가 가져 올게요.
B : 좋지요.

* get it : 가져오다
* 저하고 함께 영화를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 Thanks for taking me to the movie.
* 저에게 바지를 사 주시다니 고맙습니다
= Thanks for buying me those pants.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요우 니혼고 <1094>

めている好(す)きな言葉(ことば)がありますか。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까?

A : 早坂さん、心(こころ)に留(と)めている好(す)きな言葉(ことば)がありますか。
B : そうですね。一期一會(いちごいちえ)という言葉(ことば)でしょうか。
たった一度の出會(であ)いを大切(たいせつ)にしようって意味です。
A : へえ、いい言葉ですね。
B : そうでしょ。私たちの出會(であ)いも、一期一會ですね。でしょう?

A : 하야사카씨, 마음에 새기고 있는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까?
B : 글쎄요. 일생에 한번 만나는 인연이라는 말일까요.
단 한 번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자는 의미죠.
A : 허, 좋은 말이군요.
B : 그렇지요? 우리들의 만남도 일생에 한번 만나는 인연입니다. 그렇죠?

心(こころ)に留(と)める : 마음에 두다. 마음에 새기다
たった一度 : 단 한번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쭝구워 <71>

喂,你好!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A: 喂,你好,我是金龙,王老师在吗?
Wèi,nǐ hǎo,wǒ shì jīn lóng,wáng lǎoshī zài ma?。
웨이, 니하오. 워 스 찐 롱. 왕 라오스 짜이 마?

B: 三老师不在。
wáng lǎoshī búzài。
왕 라오스 부짜이.

A: 那么,我一会儿在打,再见。
Nàme,wǒ yíhuìr zài dǎ,zài jiàn。
나머, 워 이훌 짜이 다, 짜이 찌엔.

B: 再见。
zài jiàn。
짜이찌엔.

A: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전 김용인데요, 왕선 생님 계세요?
B: 왕 선생님 안 계시는데요.
A: 그러면, 잠시 후에 다시 걸게요. 안녕히 계세요.
B: 안녕히 계세요.

喂	(Wèi)	여보세요
那么	(Nàme)	그러면
一会儿	(Yí huìr)	잠시, 잠깐

〈광주중국어학원(상무지구 금호대우A 앞)〉
☎ 383-1605

한자 이야기 <681>

寺刹(사찰)

절 사, 절 찰

사찰(寺刹)은 불상(佛像)이나 불화(佛畵) 등을 모시고, 승려들과 신도들이 수행을 하고 종교의례(宗敎儀禮)를 집행하는 성소(聖所)이다. 인도에서는 사찰을 정사(精舍)나 가람(伽藍)이라고 부른다. 이 중 '가람'은 산스크리트어의 상가가마(Sanghrma)를 중국에서 승가람마(僧伽藍摩)라고 음역하였고, 나중에 줄여서 가람藍)이라고 표기한 것에 유래한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사(寺)'라는 한자로 표현하는데, 사(寺)는 본래 절이라는 뜻보다 관청(官廳)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던 한자이다. 후한(後漢)때 인도의 두 승려가 흰말에다 장경(藏經, 경전)을 싣고 낙양(洛陽)에 오자, 이 두 외국인을 관례에 따라 외무부 소속 관청인 홍려사(鴻廬寺)에 머물게 하면서 불도를 수행하는 승려들의 거처를 사(寺)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석가모니의 전도(傳道) 초기에는 출가자(出家者)들이 무소유(無所有)를 이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일정한 주거처 없이 독신생활을 하면서 걸식(乞食)으로 수도생활을 영위하였다. 그러나 인도에서는 7·8월의 우기(雨期)에는 이 같은 생활이 불가능하여 바깥출입을 금하고 한곳에 모여 공동생활을 하면서 수도에 정진(精進)할 장소를 마련하게 되었다. 최초의 안거 장소가 죽림정사(竹林精舍)였다고 한다.

〈한예원(韓睿嫄)〉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